기억記憶과 회귀回歸

–미국 정치의 이념과 전통

권용립

글머리에

항상 혁신을 갈구해 온 미국의 시장경제나 과학기술과 달리 미국의 정치 이념과 제도는 변화를 잘 허락하지 않는다. 건국 초기에 있었던 연방파와 공화파(반연방파)의 대립 이래 2세기 동안 보수적인 양대 정당만 존재하게끔 했던 미국 정치의 협소한 이념적 스펙트럼과 미국 정치의 저류를 흐르는 경건한 도덕적 전통주의만 보아도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유'나 '민주' 같은 공허한 수사만으로는 미국 정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선전적 수사만으로 미국 정치를 서술한다면, '9 · 11' 이후 노골화된 미국 외교의 군사주의나, 연방의회 및 주지사 선거에서까지 공화당이 완승함으로써 이라크 침공과 같은 패륜적 대외정책을 미국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무죄 평결해버린 지난 미국 대선처럼,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정의의 출발점으로 보는 현대 민주주의 정신을 미국 스스로 배반한 모순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독립 이전, 즉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된 미국 정치의 특징과 독특한 세계관을 알면 이 모순과 이중성을 야기한 미국 정치의 숨은 바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바탕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온 미국의 정체성이며 자의식이다.

'역사에 대한 기억' 에 국가적 정체성과 민족의식의 바탕을 두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은 '정신에 대한 기억' 에서 출발한다. 즉 미국은 애초부터 정치적 이념에 근거해서 건국된 나라다. 다시 말해서 긴 세월에 걸쳐 국민적 정체성을 만들어 온 공동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독립혁명이나 연방헌법처럼 건국의 바탕이 된 정치적 담론을 국민적 정체성의 바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인들이 토마스 제퍼슨이나 제임스 매디슨과 같은 18세기 후반의 실존 인물을 건국시조Founding Fathers로 신화화하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7월 4일을 국가 최대의 정치적 축제로 기념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은 자신의 역사책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천 년의 세월과 혈연의 그물망 대신 건국의 찬란한 기억과 국가설계정신(헌법)을 국민 통합의 토대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현대의 미국이 '보수' 와 '리버럴' 로 양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이념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삼아 전개되어 왔다는 데 있다. '다양한 이념의 부재' 라는 미국 정치의 현상적 특성도 여기에서 비롯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당과 정파의 대립을 초월한 이념적 울타리가 존재해 왔다. 따라서 현대의 미국을 알기 위해서는 원초부터 미국 정치를 일관되게 지배해 온 어떤 정신, 다시 말해서 현대 미국 정치의 '보수' 와 '리버럴' 을 모두 다 포괄하는 미국의 이념적 바탕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 정치이념의 기원 – 자유주의, 공화주의, 캘빈주의[1]

미국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정치적 전통을 가진 나라다. 1788년에 만

---

1 이 내용은 권용립, 『미국의 정치문명』, 삼인, 2003, 72~143쪽을 간추려 재구성한 것이다.

든 연방헌법은 변함없는 미국 정치의 경전이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원문은 훼손하지 않고 '수정조항Amendment' 이라는 추가조항만 최초 헌법의 부록으로 하나씩 덧붙여 왔다. 그나마 지금까지 개정 조항은 27개뿐이며, 특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헌법 제정 직후에 언론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한 미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기 때문에 2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헌법의 실제 수정 조항은 17개뿐이다. 이처럼 기억과 보존을 지향하는 태생적 보수성과 '원초의 것' 으로 회귀하려는 정치적 노스탤지어가 미국의 특성이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대통령 선거인단제를 폐지해서 직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제도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 수많은 총기사고에도 불구하고 총기의 소지를 금지할 헌법 개정이 쉽지 않은 것은 이런 전통 때문이다. 또 2004년 미국 대선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도덕 문제가 최고의 정치적 쟁점이 되는 미국 정치 특유의 도덕주의도 미국 정치의 특징적 현상이다. 예를 들어, 1919년에 제정되어 14년간씩이나 시행된 금주법(연방헌법 수정 제18조)처럼, 광활한 미 연방 전체를 경건한 금욕의 대륙으로 만들고자 했던 '도덕의 정치' 는 미국 정치의 뿌리가 된 바탕 이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 이념의 유래는 고대와 근대 그리고 신이다.

1. 근대—자유주의

지금까지 미국은 근대 자유주의를 구현한 자유주의의 역사적 화신으로 간주되었고, 미국은 자유주의를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소유한 국가로 자처해 왔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사는 투표권의 확대, 대의 제도의 완비, 양당제의 구축을 중심으로 편집되었다. 자유주의에 대한 미국의 원초적 향수는 미국인과 미국 제도는 항상 진보한다고 서술하는 '진보의 미국사' 를 낳았다. 미국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진보의 상징으로 추앙되었고, 미국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반자유주의 전통은 역사 서술 과정에서 하나씩 제거되었다. 그래서

식민지 뉴잉글랜드의 냉혹한 신정정치적 전통, 남부 지주들의 허영과 귀족의식, 식민 시대 타운 처치town church의 강압적 분위기 등 실재했던 과거의 상당 부분이 미국 역사에서 사라졌다. 또 독립혁명의 지도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 독립혁명에 반대했던 대영對英 충성파Loyalists 또한 존재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취급되었다.

광야에 세운 민주적 제도와 민주적 공동체를 스스로 찬미하고 미국의 역사를 보통 사람의 보통 야망을 실현시킨 역사로 자랑하면서 스스로 세계사의 보편적 승리로 자부해 온 것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수만 리 밖 변방이었던 미국인들의 문화적 소외감과 지리적 고립감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래서 유럽의 눈으로 보면 그저 그럴 보통의 업적들도 미국에서는 자유라는 외투를 걸치면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업적으로 찬양되었다. 이처럼 미국은 스스로 자유의 화신이며 민주주의의 모범이었다. 특히 독립혁명의 대부인 제퍼슨의 사상적 뿌리가 18세기의 영국 자유주의 사상가 존 로크J. Locke라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로크와 더불어 시작되어 로크를 자신에 맞게 변형시켜 여전히 로크와 함께 남아 있는 사회"라고 했던 역사학자 하츠Louis Hartz의 말처럼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 재산과 생명권의 불가침 그리고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중심 교리로 삼는 자유주의가 미국 정치의 바탕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으며 개인적 성취와 자유를 신성시하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가 극도로 번성한 미국을 근대 자유주의 이념과 결부시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근대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만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면, 개인적 이기심의 횡포를 공동체의 윤리로 견제하려는 도덕주의나 공동체주의가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미국 정치의 생리와, 할리우드 영화의 울트라 애국주의에서 엿보이는 종교적 선민의식을 설명할 수 없다. 또 선악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십자군의 세계관을 가진 네오콘Neo-

Conservatives들이 미국을 장악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정치 이념의 원형, 즉 미국의 모든 정치인이 신성하게 여기는 미국의 정신을 자유주의만이 아니라 공화주의와 퓨리터니즘에서도 찾아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2. 고대-공화주의

미국은 고대는커녕 중세의 기억조차 없는 근대의 적자다. 그러나 왕정에 저항한 혁명을 통해 이룩한 나라라고 해서 미국을 근대 자유주의의 산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미국 정치를 움직여 온 정치이념의 기원은 일반의 상식과 달리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의 연방 및 대부분의 주에서 의회 및 정부 청사의 건물이 고전 시대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고 링컨과 제퍼슨을 기리는 기념관들도 고대 신전의 형상이다. 18세기 말에 만들어진 미합중국의 문장紋章도 고전 언어인 라틴어가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President과 상원Senate과 같은 권력기관의 명칭도 알고 보면 로마 공화정의 정치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 트로이Troy나 로마Rome, 아테네Athens처럼 그리스-로마 시대의 도시 이름이 미국 도시의 이름에 유독 많은 것도 미국 역사 속에 녹아 있는 고대성에 대한 동경을 잘 보여준다.

이런 현상을 미국 정치이념의 틀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미국은 자유주의가 아닌 공화주의의 나라라는 이론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베일린B. Bailyn과 포칵J.G.A. Pocock을 비롯한 미국 역사학자들은 독립혁명과 건국의 토대 이념으로 고대 공화주의를 지목함으로써 '자유주의의 미국' 이라는 대전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치적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2] 즉 로마 공화정의 공화주의 이념이 르네상스 시대의 마키아벨리와 16~17세기 영국의 저항사상(영국 궁정 귀족들의 전제정치에 저항한 해링턴John Harrington과 그의 사상을 신봉한 사람들)을 통해 부활했고 이것이 미국 독립혁명과 건국의 이

념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을 문자 그대로 '미공화국American Republic' 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화주의란 정치를 인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덕성의 행위로 보는 공동체주의적 정치이념이다. 그 첫 번째 신조는 정치권력의 타락을 막기 위한 장치 즉 혼합정체의 이념이다. 공화주의의 정치이념은 현명한 한 사람이 통치하는 군주정과 능력 있는 소수가 공익을 위해 통치하는 귀족정 그리고 신중한 다수가 통치하는 민주정을 모두 혼합시킨 혼합정치체제를 지향한다. 그것은 군주정이 폭정으로, 귀족정이 과두정으로, 민주정이 중우정으로 타락하게 되는 권력의 자연법칙을 모면할 방법, 즉 "세월이 흐르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력의 부패와 타락"을 막을 현실적 대안이 그것 뿐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따라서 삼권분립의 미국 헌정체제는 알고 보면 공화주의 이념을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미국 대통령은 군주, 연방 상원은 귀족, 하원은 민주정을 상징하는 권력기관이다. 애초에는 대통령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었던 것(1951년에야 대통령의 3선 금지), 상원 임기가 하원의 세배인 6년이나 되는 점, 또 하원은 매 2년마다 모두 선거하지만 상원은 귀족정치의 속성인 연속성(급격한 변화를 방지)을 보장하기 위해 매 2년마다 그 1/3씩만 번갈아 선거하는 등, 이 모든 정교한 장치들은 근대 민주주의의 권력분립론으로는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헌법조항, 즉 시민의 무기(총기) 소지를 아예 헌법으로 보장한 조항(연방헌법 수정 제2조)은 권력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남용될 수 있는 상비군 제도 대신에 시민이 동시에 전사가 되는 민병제도를 통해서 국가권력의 타락에 시민이 언제라도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화주의의 민병사상을 구현한 것이

---

2 Bernard Bailyn,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J.G.A. Pocock, *The Machiavellian Moment: Florentine Political Thought and the Atlantic Republican Tradi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등.

다. 이처럼 미국의 정치는 민주정이기 이전에 공화정이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합중국U.S.A.보다는 미공화국American Republic이라는 말을 더 애용하는 이면에는 이런 정신적 전통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화주의에 주목해야 하는 더 큰 이유는 공화주의가 미국 정치에 부여한 역사관과 정치윤리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은 세월이 가면서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공화주의 특유의 비관적 역사관은 정치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항상 '원초의 기억'을 중시해야 한다는 신념을 미국 정치의 전통으로 만들었다. 또 공화주의의 핵심 개념, 즉 '덕성Virtue'을 가진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기심을 통제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적 정치윤리는 어떻게 미국에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와 도덕주의적인 정치적 열정이 공존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권력의 타락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 다시 말하면 '덕성과 타락의 대결'을 구도로 해서 정치를 바라보는 공화주의의 근본 윤리가 독립혁명과 건국 시대를 일관한 정치적 이념이었으며, 이 미국의 원초적 정신을 보존하는 일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 정치의 불문율이 된 것이다. 일단 수립된 체제를 훼손하는 것을 개혁 아닌 개악으로 보는 미국 정치의 독특한 시각, 또 개혁과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래의 정신이 변질되는 것을 막음으로써만 자유가 보존된다는 신념,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원초의 정신과 체제를 보존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회귀주의적 신념 때문에 미국 역사상 있었던 여러 개혁운동(1820년대의 잭슨 민주주의, 19세기 말의 혁신주의, 1960년대의 뉴레프트 운동)은 한결같이 '어제를 부정하는 내일'을 추구하는 대신 '어제로 돌아간 내일'을 지향하는 보수적, 회귀적 지향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제헌의회와 연방헌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연방국가 수립에 찬성한 연방파나 그에 반대한 반연방파 모두 고전 시대의 인간형인 '덕성의 시민'이 이기심으로 범벅된 자본주의적 근대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초기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인간

의 당파적 본능과 권력의 필연적 타락 가능성을 냉철히 인식하고, 그 전제하에서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미국 정치의 제도를 마련했다. 미국 정치의 바이블이 된 연방헌법은 바로 이 고민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미국 민주주의의 정치사적 의의는 대통령 중심제나 삼권분립제의 발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타락 가능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타락의 가능성 또한 현실의 제도로 막으려 했다는 것, 즉 강력한 정치윤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의의다. 이처럼 미국 정치의 출발은 냉엄한 현실주의 그 자체였다. 상업적 사치와 타락에 찌든, 그리고 사사로운 이기심에 젖은 '근대적 인간'을 가지고 고전 시대의 정치 즉 '덕성의 국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윤리적 고민이 미국 정치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3. 신-캘빈주의

미국 정치사상의 시간적 기원이 고대 로마라면 그 공간적 기원은 17~18세기의 뉴잉글랜드다. 알려진 바와 같이 1620년에 로드아일랜드의 플리머스에 도착한 영국인들은 메이플라워호의 약정과 같은 플랜테이션 약정을 기초로 민주적 교회와 민주적 국가 수립이라는 원칙을 신세계 공동체의 법칙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1630년 이후 매사추세츠로 건너오기 시작한 청교도는 엄격히 계층화되었던 영국의 중산층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귀족과 부르주아지의 중간 계층인 이들은 신세계에서도 시종을 부리는 생활을 하리라 꿈꾸고 있었고 이들의 목표는 애초부터 민주적인 평등 사회의 건설이 아니었다. 이 뉴잉글랜드의 전통은 퓨리터니즘, 즉 식민지 시대의 미국 정치이념을 지배했던 캘빈주의의 신정정치 관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캘빈주의는 인간의 원죄, 숙명적 타락,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노동과 직업, 관용하지 않는 신, 하나님을 세속의 군주로 보는 태도, 영혼 세계의 귀족주의, 구원예정설 등을 골자로 하는 신학이론인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띠고 있는 정치적 성격이다. 우선, 영혼 세계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절대자인 신의 냉혹한

의지는 세속에 투사되어 소수에 의한 통치, 즉 세속적 귀족정의 전통을 만들어 낸다. 또 다수의 영혼 중에서 신이 선택한 소수의 영혼만 구원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캘빈 교리의 구원예정설은 "구원은 귀족주의적이고 멸망은 민주주의적"인 캘빈 신학의 특징을 만들었고 결국 이것은 신이 선택한 소수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또 캘빈주의의 천년왕국사상Millennialism 또한 17세기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거쳐 영국 급진주의로 수렴되었고 자유주의나 공화주의와 같은 세속사상과 함께 미국 식민지로 유입되었다. 이것은 아마겟돈의 평원에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싸운 결과, 정의가 승리하여 천 년의 화평이 오지만 전쟁이나 지진, 혁명 등으로 그 징조를 비치는 최후의 싸움이 다시 벌어져서 결국 선이 악을 무찌르고 최후의 심판을 찬양한다는 묵시록의 계시를 세속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그래서 뉴잉글랜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된 영국 교회를 떠나 참 교회를 신세계에서나마 보존할 소명을 띤 신대륙의 퓨리턴이야말로 새 땅에 기독교 공동체를 건설할 소명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상속받은 미국이야말로 '신세계의 이스라엘New World Israel' 이라고 믿었다.

결국 이것은 "We the People…"로 시작하는 미국 연방헌법이 상정한 미국 국민의 역사적 원형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초기 이민자들은 홍수로 범람한 세상에 홀로 떠 있는 노아의 방주에 탄 그 권속이었고 이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정착하는 것은 생물이 사멸한 대지에 새 생명을 번성시켜야 할 노아의 소명이었다. 퓨리턴의 소명, 즉 '광야에서의 부름Errand into Wilderness' 은 선지자 이사야와 세례 요한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울 뉴잉글랜드 사회는 세상의 횃불이며 그들이 영위할 신성한 삶은 참 프로테스탄티즘의 모범이어야 했다. 식민지 신정정치의 지도자들은 로마의 멸망을 고대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신의 응징으로 보고, 사치와 방종과 도덕적 타락을 경계하라고 끊임없이 경고했다. 미국을 고대 이

스라엘과 로마의 후계로 보는 성서적 신념은 미국 특유의 선민의식과 소명의식의 뿌리였고 20세기 이후 미국의 세계관을 지배한 신념이다. 이 선민의식은 식민 시대 매사추세츠의 신정정치 전통을 확립한 존 윈스롭John Winthrop에서 시작해서 19세기 말 미국 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WASP의 우월의식을 주장한 스트롱Josiah Strong이 집대성했고 20세기에는 윌슨 대통령W. Wilson의 외교적 메시아니즘, 케네디J. F. Kennedy의 '뉴 프런티어' 이념 그리고 존슨L. B. Johnson의 '위대한 사회' 이념으로 맥을 이어 왔다.

미국 정치의 역사적 성향 — '기억'과 '회귀'

이들 세 이념은 하나로 합치될 수 있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정치 공동체의 공공 이익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는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라는 간극에도 불구하고 강한 국가권력을 경계하고 권력 남용에 대해 저항한다는 점에서 합치될 수 있었다. 또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는 절대적 평등과 급진적 변혁에 대한 경계심을 공유했기 때문에 절대적 평등에 반대하는 미국 정치의 전통을 확립하는 데 함께 기여했다. 그리고 이들은 세속적 위계관념을 정당화시킨 캘빈주의와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었다. 특히 퓨리터니즘과 자유주의는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라는 점에서 또 계약의 관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합치될 수 있었다. 이처럼 폭정에 저항하고, 절대적 평등을 경계하고, 거대국가와 거대권력에 대한 감시를 정치 윤리의 근본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공화주의, 자유주의, 캘빈주의는 서로 수렴될 수 있었다.[3] 이렇게 볼 때 미국이라는 국가의 근본이념은 고대와 근대 그리고 신God의 합작품이며 미국 정치의 근본적 성향을 "과거에 대한 기억과 향수"로 만들어 온 역사적 요인도 바로 이것이

---

3 이 융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권용립, 앞의 책, 144~176쪽을 참조.

다. 구체적으로 보자.

미국 정치이념의 모태가 된 독립혁명부터가 상식과는 달리 보수적이다. 조지 3세 치하에서 영국의 궁정을 지배한 휘그당 귀족들 때문에 영국의 군주정이 폭정으로 타락했다는 인식, 따라서 노르만이 영국을 정복하기 이전의 체제 즉 '원래의 영국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독립혁명을 주도한 엘리트들의 역사관이었다. 11세기의 노르만 침략 이전에 존재했던 원초적 영국 정치체제를 아메리카에서 복원하려는 것이 영국으로부터의 분리 운동을 촉발하고 정당화시킨 명분이었다. 그래서 독립혁명은 원초의 정신을 배반한 18세기 영국 정치와 영국 의회의 식민지 억압에 대한 반란이었지 영국 그 자체를 겨냥한 혁명은 아니었다.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 왕까지 처형한 서유럽의 시민혁명과 달리, 미국의 혁명은 옛 체제를 기억하고 거기로 돌아가려는 회고적 정치이념의 발현이었다. 혁명의 교리는 혁신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독립전쟁은 결국 '모국 영국'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존경에서 출발한 것이다. 촘스키N. Chomsky나 진Howard Zinn처럼 노예나 인디언 또 제3세계에 대해 미국이 저지른 불의를 폭로해 온 미국의 비주류 지식인들도 미국 정치의 이러한 원천적 속성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주류 지식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개방과 자유 그리고 평등으로 치장해 온 미국의 신화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현대 미국 외교의 일방주의가 아니라 원초의 미국으로부터 전승된 어떤 근본, 즉 이념적 보수성인 것이다.

또 독립 직후인 1780년대 후반, 느슨하게 연합해 있던 13개 주를 단일 연방국가(오늘의 미합중국)로 통일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연방파Federalists와 공화파Republicans의 대립도 이념적 대립은 아니었다. 미 대륙에서는 강력한 연방이 시민적 자유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연방파와, 거대권력은 시공을 불문하고 반드시 타락한다고 믿은 공화파(반연방파, Anti-Federalists)의 대결은 로마 공화정이 왜 제정으로 몰락했는가에 대한 해석상의 대립이었을 뿐, 공화주의를 미국의 이념으로 믿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다. 물론 제퍼슨이 제3대 연방 대통령에 당선된 1800년 이후부터 연방파의 세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양 정파의 정치적 대결이 수그러들기 전까지는 각각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제퍼슨을 수장으로 한 연방파와 공화파의 정치적 대립이 계속된 것은 사실이다.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을 둘러싼 양 정파의 이념적 대립도 그렇고, 대체로 해안 및 상업자본의 이익을 대변한 연방파와 농업 지주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 공화파 간의 대결은 1796년 보안법Sedition Acts과 외적법Alien Enemies Acts의 제정을 둘러싸고도 재연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정치적 대립은 동일한 정치이념의 틀 내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 간의 대립이었다. 이들은 둘 다 합의된 하나의 이념, 즉 '자유'와 '공화'를 융합시킨 보수의 정치를 지향했던 것이며 극좌와 극우가 공존하면서 투쟁해 온 유럽과 달리 단일 이념에 대한 지향과 합의의 성향을 애초부터 띠고 있었던 것이다.

앤드류 잭슨A. Jackson을 지지하는 민주 공화파(Democratic Republicans, 민주당의 전신)와 그를 반대하는 국민공화파(National Republicans, 휘그당 그리고 다시 공화당으로 계승됨)로 정치 구도가 다시 짜여진 1820년대 이후의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다. 보통 사람의 민주주의, 보통 사람을 위한 평등을 주장하면서 강력한 연방 권력 행사에 반대했던 잭슨 민주당의 이념과 이에 반대했던 연방파 계보의 반잭슨파의 대립은 서부 팽창을 미국의 운명으로 보는가, 아니면 영토 팽창보다는 상업 팽창에 더 주력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대립이었다. 또 1830년대와 1840년대에 미국이 서부로 급격히 확장하면서 생긴 남부와 북부의 대립, 즉 남부 노예주와 북부 자유주 간의 다툼도 새로운 서부의 연방 편입 문제(노예주로 편입시키느냐, 자유주로 편입시키느냐)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미국 정치는 이념의 차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서부로 인해 생겨난 이해관계를 둘러싼 정치였다. 잭슨파나 반잭슨파 모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덕성의 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이라는 지향점에는 합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19세기까지의 미국 정치는 남부와 북부, 해안과 내륙의 정치문화와 이익이 충돌한 이익의 정치, 지역의 정치였다. 1840년대 이후 가속되어 결국 남북전쟁(1861~1865)으로 귀결된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투쟁도 미국 건국 전후에 있었던 연방파와 공화파의 대결이 남북 간의 세력 다툼 형태로 재현된 것이다. 특히 링컨의 북부가 승리한 1865년 이후 1932년까지의 연방정치에서는 공화당 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남부가 민주당의 아성으로 굳어져 버리는 철저한 지역 기반의 정치가 계속되었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념적 분화는 1930년대 이후에나 시작하게 된다.

결국, 미국 정치의 표면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치적 수사가 장식해 왔지만 미국 정치의 내면은 기억과 보존이라는 역사적 성향에 의해 채색되어 왔다. 미국 정치의 성서나 다름없는 연방헌법에 구현된 뜻밖의 정치적 고대성과 독립혁명의 이념에 담긴 회고적 성향이 미국 정치의 저변을 흘러왔기 때문에 19세기 말의 혁신주의Progressivism, 1960년대의 뉴레프트 운동, 1970년대의 미국 정당개혁 등 미국 역사상 있었던 대부분의 정치적 개혁이 표방했던 이념도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내일"이 아니라 "원초의 정신으로 돌아간 내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억과 회귀를 지향하는 미국 정치의 전통은 독립혁명이나 연방헌법 제정과 같은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사에 꾸준히 나타난 토착주의와 도덕주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헌팅턴이 그의 최근 저서[4]에서 주장하듯, 미국은 앵글로색슨의 나라다. 그래서 이 앵글로색슨의 미국을 수호하려는 토착주의는 미국 정치사에서 여러 갈래로 표출되었다. 공화당과 같은 해(1854년)에 결성된 미국당(American Party, 흔히 Know Nothing Party)처럼 이민과 가톨릭, 즉 미국 내부에 있는 '비 미국'에 대한 반감을 정치적으로 결집한

---

4 Samuel P. Huntington, *Who Are We :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4).

것이 겉으로 드러난 토착주의라면, 반노예제 운동Anti-Slavery Movement처럼 흑인 노예를 서인도제도로 추방하여 백인만의 미국을 다시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위장된 토착주의도 있었다. 즉 대부분의 노예해방론자들은 백인 토착주의를 마음속에 은닉하고 있었다. 또 1차대전 중의 반독일 히스테리로 시작된 100퍼센트 미국주의100 Per Cent Americanism와 같은 전시 민족주의라든지, 미국인의 신조American Creed를 수업 전에 암송하게 했던 학교 의식 등은 미국 정치가 '미국적인 것'에 대한 토착주의적 강박감을 얼마나 강하게 갖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 강박감은 미국과 대적하고 비교할 '타자'를 항상 요구해 왔고, 그 타자를 포착하는 순간 도덕적 순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미국 특유의 십자군주의가 발동했다는 사실을 미국의 역사는 잘 보여 주고 있다.

2004년 미국 대선에서도 위력을 발휘했지만 미국 정치 특유의 도덕주의는 토착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예를 들어, 19세기의 미국에서 흑인 박해 운동으로 시작된 3K(Ku Klux Klan)도 20세기에 들어 미국의 지배 엘리트인 백인 신교도WASP의 도덕적 순결을 지키려는 운동으로 귀결되었다. 미국의 혼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밀주, 간음, 심지어는 재즈와 같은 음악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은 3K 이념의 도덕주의의 이면에는 비 미국적인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진 국수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신분 이동이나 공간적 확산은 역동적이면서도 근본 변화를 목표로 한 혁명이 없는 미국에서, 원초부터 미국의 이념을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집단은 미국의 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으니, 3K 이념의 바탕에는 흑인 그 자체에 대한 멸시보다는 흑인이라는 '백인들만의 미국 속에 들어온 외부'를 공격대상으로 삼은 토착주의가 깔려 있었다. 그런가 하면, 볼셰비키 혁명에 간섭하려고 시베리아에 미군을 파견했던 윌슨 대통령부터 1950년대의 매카시즘, 1960년대 미국의 극우 반공 집단인 존 버치 소사이어티John Birch Society 그리고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와 레이건을 비롯한 공화당 보

수파에 이르기까지 20세기의 미국 정치를 관통해 온 반공 이데올로기도 결국은 '미국적인 것'을 보존하고 기억하려는 토착주의와 도덕주의의 발로다. 자유주의의 반권력사상과 캘빈주의의 위계관념 그리고 급진과 혁명을 반 미국적인 것으로 보는 공화주의의 회귀 지향성은 각각 국가가 강요하는 평등을 거부하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20세기의 미국이 표출한 강박증과 반감은 필연적인 것이다. 또 미국의 경험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급격히 변화하는 모든 것을 반 미국적인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향도, 왜 반공과 반급진이 20세기 미국의 대표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최정상에 서 있는 미국에 강력한 사회주의 이념이 존재하지 못한 역설, 곰퍼즈Samuel Gompers와 미국노동총연맹AFL-CIO이 보여 준 미국 노동운동의 보수성, 제3세계 민족주의나 민주화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가 보여 준 이중성, 제3세계에 대한 미국 외교의 반지성적 태도는 모두 기억과 보존 또는 기억과 회귀라는 미국 정치의 역사적 성향을 먼저 알아야만 이해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신보수화 현상을 주도해 온 기독교 우파의 강세 및 연방정치에서의 공화당 우세 추세와도 연관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우파가 유럽과는 달리 항상 (백인)노동자를 그들의 지지 세력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도, 타자 즉 비 미국적인 것을 배격하고 비 미국적인 것을 반사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규정해 온 미국적 전통의 영향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와 외교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공격, 즉 '반反…주의'들로 점철되어 있는 이유도 미국적인 것에 대한 기억과 회귀의 본능이 비 미국적인 것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술과 경제에 대해서는 리버럴한 미국이 가치나 제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까닭, 또 미국의 자유는 항상 '보수'를 통해 유지되어 온 까닭은 이처럼 기억과 회귀를 지향해 온 미국 정치의 전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현대 미국의 보수와 진보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정치적 권한이 19세기까지 미미했던 것은 강력한 중앙권력(연방정부)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이 미국 정치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 연방정부가 강력한 시장개입과 복지정책을 펴기 시작한 1930년대의 뉴딜로 인해 이 전통이 흔들리게 되었고, 그 이후 미국 정치이념은 마침내 보수와 진보로 분화된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강력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통해 의료 및 복지정책을 확충하고 여성, 유색인, 동성애자 등 피억압계층을 위한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정당으로 굳어져 왔고, 뉴딜 이후 공화당의 이념은 작은 정부, 즉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반대 및 조세삭감, 또 전통적 도덕과 가치보존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처럼 뉴딜은 미국 정치가 이념적으로 분화된 계기다. 그것은 미국 정치에서 국가와 시민 사회의 대립이 최초로 일어난 시대가 뉴딜이기 때문이다. 원래 미국의 예외성으로 손꼽는 것이 반국가주의 전통, 즉 약한 국가weak state를 지향하는 전통이다. 이 전통은 정파와 정당을 막론하고 19세기까지 미국의 변함없는 정치이념이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은 있었지만 실제로 연방권력이 강력하게 행사된 사례는 별로 없었다. 또 유럽에서는 혁명 세력의 목표가 주로 국가 장악이었지만 미국의 노동운동(1870년대의 철도 파업에서부터 1950년대의 자동차 · 철강 파업에 이르기까지)과 포퓰리즘(19세기 후반 동부의 자본 세력에 대한 서부 농업 세력의 저항, 지폐 사용을 주장한 Greenback Party, People's Party 등으로 정치 세력화됨)의 목표는 국가 장악이 아니라 경제 투쟁이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는 국가 즉 연방정부 권력의 적정 규모에 대한 합의가 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뉴딜 이전의 연방정부는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러 주는 마당, 즉 정치적 시장으로 존재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뉴딜은 국가로 볼 수 없었던 유약한 미국의 연방정부가 경제위기를 구실로 삼아 경제와 사회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시작한 최초의 계기이며, 주 단위의 지방정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정치적

투쟁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뉴딜의 또 다른 이념적 의의는 미국의 전통적 평등관이 뉴딜을 계기로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있다. 평등의 이념은 사회(시장)의 자율 조절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미국 정치의 전통적 합의가 뉴딜을 계기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출발점의 평등은 보장하되 결과의 평등에는 반대하는 미국의 전통적 평등 이념이 뉴딜 이후 분열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물론 뉴딜이 소외된 사회계층을 위한 재분배 정책(복지국가)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고전적 자유방임 자유주의가 이제는 "자유 안에서 평등"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믿는 현대 미국의 리버럴리즘으로 바뀐 전환점이 뉴딜이다. 또 뉴딜을 계기로 해서 흑인과 도시 빈민, 노동자와 소수인종 집단이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새로이 편입되면서 공화당이 우세하던 남북전쟁 이후의 연방 정치 세력 판도도 민주당 우세로 재편성되었다. 이것이 뉴딜 리얼라인먼트 New Deal Realignment다.[5] 그 이후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이념적 차별성을 표방하고 연방정부의 권력을 바탕으로 평등 이념을 적극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뉴딜은 미국 민주당이 현대 미국의 리버럴리즘[6]을 표방하게 된 계기가 된다. 이처럼 미국 양대 정당의 이념적

---

5 뉴딜 정당 체제의 성립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가장 큰 정치적 변동이다. 남북전쟁 이후부터 1932년 이전까지의 연방 정치 판도를 보면 민주당은 줄곧 약세였다. 특히 공화당의 우세를 결정적으로 확립한 1896년 선거 이후 36년간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두 번(1912년과 1916년, 윌슨)만 승리했고,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기간은 상 · 하원 합쳐서 6년에 불과했다. 윌슨의 당선도 두 번 모두 총 투표수(선거인단 수가 아니라)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득표로 된 것인 데 반해서 나머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계속 압승을 거두었다. 1920년(W. Harding 공화당 후보), 1924년(C. Coolidge 공화당 후보), 1928년(H. Hoover 공화당 후보)의 선거가 특히 그랬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1932년 선거에서 F. D. 루스벨트가 총 투표수의 57%를 얻은 것은 정치적 혁명이었다. 민주당으로서는 1856년 선거(J. Buchanan 당선) 이후 80년 만에 처음이었다. 또 1932, 1934, 1936년의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도합 170석의 하원 의석, 36석의 상원 의석을 추가로 획득해서 1937년에 시작된 제75차 연방의회의 양당 의석 분포를 보면 상원에서 75대 17로, 하원에서 333대 89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좌표는 뉴딜 이후에 확립되었다.

한편 뉴딜 리버럴리즘에 대한 대항 이념으로 출발한 현대 미국 보수주의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미국 보수주의는 뉴딜 정책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가권력의 확장에 반대했다. 즉 미국 보수주의의 출발점은 국가 주도의 평등정책, 복지정책, 시장개입이 집체주의 또는 전체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다. 그래서 뉴딜 반대자들이 보기에 뉴딜은 혁명이었다.

그런데 뉴딜 혁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미국의 보수주의는 현대 미국 보수주의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먼저, 반 뉴딜 이념으로 시작한 미국 보수주의는 공화당의 전통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미국의 해외개입에 반대했다. 이들에게는 미국만 중요했던 것이다. 특히 반공적 대외개입 정책 때문에 미국의 세계적 부담이 커져서 연방군사예산이 증가하고 연방정부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경계했다. 소련 자체보다는 미국의 대소 간섭이 미국 국민에게 더 위협적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국 보수주의는 전투적 반공주의 및 대외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공적 개입주의로 변화했다. 그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로부터 트루먼H. S. Truman에 이르기까지의 민주당 행정부가 취한 유약한 반공 정책 때문에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인식의 전환이 공화당 보수파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의 세대교체와 중국 공산화, 한국전쟁 등을 겪는 과정에서 불개입주의의 설득력이 약화된 냉전 구조 때문이었다. 즉 거대 국가에 반대해 온 전통적 보수주의는 냉전 구조 속에서 다

---

6 'liberalism'을 '자유주의'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혼란이 생긴다.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의 '리버럴리즘'은 국가 간섭을 반대하면서 시작된 서구의 자유주의(liberal) 그리고 뉴딜 이전의 미국 자유주의와는 어떤 면에서 반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대로 '리버럴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차라리 정확하다.

시 분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개입주의 성향의 보수주의자들은 계속 보수주의자conservative로 남고, 공화당의 반전통인 불개입주의를 고수한 보수주의자들은 리버타리안libertarian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 보수주의의 주류를 개입적 보수주의가 장악하게 된다. 대외정책에 한해서만 거대 국가를 지지하는 냉전적 보수주의가 반공을 기조로 삼고 현대 미국 보수주의를 장악하게 된 것이다.

전통적 보수주의가 현대 미국 보수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또 다른 변화는 사회 · 종교적 전통주의와의 접맥이다. 전통적 보수주의는 개인주의와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즉 리버타리아니즘libertarianism 사상이기 때문에 지나친 개인주의를 비난하는 도덕적 전통주의와 보수주의가 접맥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양자 간에는 사유 재산제에 대한 믿음이나 '평등 지상주의'에 대한 반감을 제외하면 차이점이 더 많다. 그러나 미국에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집단적 유토피아에 대한 반감과 공산주의에 대한 강박관념은 이 접합을 가능케 했다.

이렇게 해서 현대 미국 보수주의의 윤곽이 마련되었다. 즉 경제 이념으로서의 보수주의는 조세증대, 연방예산의 팽창, 기업규제 정책과 같은 국가 개입이 개인의 자유, 사회적 번영, 국가적 부의 증대와 배치된다는 주장을 그 기조로 삼게 된다. 그리고 사회 윤리로서의 보수주의는 미국 자본주의의 세속적이고 나약한 상업성과 타락상(마약, 포르노, 도박, 동성애, 상업주의적 미디어 등)을 비난하는 한편 전통적 가족과 남녀 성 역할 및 종교적 경건성과 도덕률이 붕괴되는 데 대한 분노와 우려를 대변하게 된다. 그리고 외교 이념으로서의 보수주의는 미국의 적(그것이 공산주의든 테러든)인 '악과 야만'에 대한 십자군적 징벌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방임주의economic libertarianism, 사회적으로는 전통주의social traditionalism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호전적 개입주의militant interventionism가 현대 미국의 보수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신보수Neo-Conservatism'의 본질

21세기 초의 미국 외교는 이미 1997년부터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준비하는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의 추진을 공언한 신보수파(네오콘)가 장악했다.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및 울포위츠 차관, 존 볼튼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 그리고 윌리엄 크리스톨과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이 집단의 이념적 동력은 '지식'과 '종교'이다. 원래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과 노먼 포조렛츠Norman Podhoretz등이 주도했던 미국 신보수주의 제1세대는 대부분 1960년대까지 좌파 성향의 리버럴이었다가 1970년대 이후 우경화한 사람들이다. 네오콘의 사상적 고향이 민주당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이들은 1960년대의 흑인폭동, 민권운동의 과격화, 존슨 대통령의 급진적 평등정책인 '위대한 사회'에 반발하면서, 그리고 1960년대 후반의 반전운동과 뉴레프트 이념이 급진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Public Interest, Commentary* 등의 잡지와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Times* 등을 매체로 해서 결집하기 시작했고 통상 뉴라이트New Right, 즉 신우파로 통칭된다. 물론 구우파Old Right와 신우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신우파는 사회적 이슈, 도덕이나 종교와 같은 사회문제의 정치적 중요성을 더 크게 부각하고 레이건의 경제 이념이 된 '공급 측면의 경제학'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구우파와 다를 뿐이다. 핵심 인맥을 봐도 양자는 연속성을 가진다. 초기의 신우파를 대변한 인물들이 대개 60년대 구우파의 중심에서 성장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보수주의, 즉 'New Religious Right'도 재계의 보수화 및 공화당 조직의 강화 추세와 함께 미국의 신보수화를 강화시킨 주요 세력이다. 미국 역사를 보면 신교 교파 중에서도 복음주의evangelism와 근본주의fundamentalism는 정치적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도덕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들은 1970년대 이후부터 북부 감리교단과 장로교단을 비롯한 기존의 주류 교단 세력이[7] 약화되는

틈을 타서 그 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8] 특히 사회적 이슈social issues를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1970년대 이후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잡은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가족 문제 등은 그 자체로는 정치문제가 전혀 아니지만,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급진적 리버럴리즘에 대한 이념적 공세를 기독교 신우파가 도맡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 기독교 보수주의는 남부 침례교단과 감리교단의 거대교회super church들과 전자교회(방송 선교) 등을 통해서 교세를 확장하고 낙태 문제,[9] 동성애 문제, 포르노, 마약, 에이즈, 도시범죄, 여성 평등권 문제 등에 대한 이념적 입지를 다지면서 언제라도 정치세력화(즉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10]

이들이 주도한 신보수주의는 1960년대의 민권 운동과 흑백평등 이념에 반대하면서 주로 남부 백인의 거부감을 정치적으로 선동함으로써 태동한 것이며 그 주요 지지세력도 백인 노동 계층이다. 이들은 월남전으로 인한 달러 유출, 월남전 패배로 야기된 국민적 좌절감, 1970년대 중반의 경기 침체, 미

---

7 United Presbyterian Church, Episcopal Church, United Church of 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 등.

8 그 이유는 1950년대부터 교육수준의 상승, 지리적 이동성의 증가 때문에 세대 간의 '교파 상속' 현상이 줄어들면서 주류였던 온건 프로테스탄트 교단의 세력은 약화되는 대신 보수적 교파 세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A. James Reichley, *Religion in American Public Lif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5), pp. 267~280.

9 낙태가 합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1973년의 Roe v. Wade)과 이에 대한 가톨릭의 반발은 민주당 지지세력인 가톨릭 및 아일랜드, 이탈리아계가 공화당으로 이탈하는 계기였다. G. Peele, *Revival and Reaction: The Right in Contemporary Ame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10 제리 폴웰(Jerry Falwell)의 주도로 1979년에 창설된 '도덕적 다수' (Moral Majority)와 그 후신인 자유연맹(Liberty Federation)이 대표적 조직이다. 그리고 전국 복음주의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을 중심으로 한 '원탁종교회의' (Religious Roundtable)와 텔레비젼 목사(Televangelist)로 널리 알려진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의 지지하에 소련과의 전략핵무기 제한 협정(SALT II)까지 반대했던 기독의 소리(Christian Voice)도 개신교 보수주의를 정치세력화한 조직 기반들 중의 하나다.

국 외교에 대한 제3세계의 저항 등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1980년 이후의 신보수화를 선도해 왔다. 이렇게 보면 복음주의적 기독교 백인 노동 계층과 보수적 미디어의 공세,[11] 재계의 후원을 받는 보수적 두뇌집단Think Tanks 및 지식 세력이 구 우파에 가세함으로써 형성된 광범위한 정치 블록이 신우파인 셈이다. 그 바탕에는 레이건Ronald Reagan 이후 가속화된 재계의 공화당화, 기독교 우파의 정치세력화, 공화당 자체의 이념적 보수화, 남부와 서부의 선벨트 지역 및 군수 · 항공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대두한 건벨트Gunbelt 지역에 대한 공화당 세력의 침투 등 여러 요인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승리는 80여 년 만에 미 연방 상 · 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한 1994년의 중간 선거와 미국 연방선거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2004년의 미국 대선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네오콘의 정치적 대두와 미국의 전반적 보수화는 미국 정치의 이념적 전통을 반영한 것이며 결코 미국 정치의 이념이나 전통에서 벗어난 현상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평등 문제에 관한 미국의 이념적 전통이 기회의 평등은 인정하되 결과의 평등은 거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이념적 바탕이 된 캘빈주의의 노동 관념이나 자유주의의 반권력 관념 모두가 노력에 뒤따르는 개인적 성공을 옹호하고 노력과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결과의 불평등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또 공화주의의 자연분화관념(사회는 자질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 분화되는 것이 자연법칙이라는 믿음)도 기회만 평등하면 결과의 불평등은 정당하다는 미국적 평등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 미국의 보수화 현상은 1970년대 이후의 미국 사회 일각에서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 대두한 급진적 평등주의에 대한 '전통적 미국'의

---

11 미디어를 통한 기독교 우파의 정치적 공세와 정치 세력화를 분석한 것으로 Sara Diamond, *Spiritual Warfare: The Politics of the Christian Right* (Boston, MA.: South End Press, 1989).

대응으로 봐야 한다. 즉 미국의 전통을 보존하고 원초의 미국으로 회귀하려는 정치적 자동조절 현상이다. 종교와 지식세력의 보수화는 이러한 조절 작용을 대변한 것이며, 이것이 1970년대 이후로 본격화된 공화당의 조직 강화 전략 및 '신 남부'의 대두(산업화되면서 남부가 공화당 성향으로 돌아선 현상)와 합쳐지면서 미국 정치의 전반적 추세를 보수 편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낙태의 권리, 동성애의 권리, 환경의 권리, 동물의 권리 등 억압받는 모든 것들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보장하려는 급진적 평등주의가 앵글로색슨 문화를 바탕으로 한 미국 백인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위협하는 데 대한 대응이 신보수주의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남부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남북전쟁 이후 100년간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남부가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으로 바뀌게 된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화당 우세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또 그 때문에 현대 미국의 우경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의 이념적 전통을 알게 되면 미국의 신보수화는 전통적 미국의 자기방어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존슨 행정부의 민권법(1964년)과 투표권법(1965년)으로 시작된 1960년대 미 연방정부의 급진적 평등정책과, 1960년대 말부터 민주당 주도로 시작되어 정당개혁으로 확산된 급진적 리버럴리즘이, 보수를 지향해 온 미국의 정치적 전통을 건드림으로써 파생된 정치적 현상으로 '신보수'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정치의 교훈과 모순

미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보수화가 미국 정치의 일시적 일탈 현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배 정당의 지위를 번갈아 가며 누려 온 미국 정당사의 특성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민주당 우세 시대가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 정치를 일관되게 지배해 온 어떤 이념적 전통과 성향, 즉 기억과 회귀의 성향은 어느 정당이 지배정당이 되든

미국 정치의 변화폭과 그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급진적 정당이나 이념이 설 자리가 없는 전반적 보수 성향과 정치적, 도덕적 전통에 대한 회귀 지향성은 민주당과 공화당에 관계없이 미국의 정치를 보수의 정치로 만들어 온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보수의 바탕은 원천적으로는 미국 정치이념의 보수성에 있다. 즉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캘빈주의에 내포된 보수적 정치이념에 있다. 그러나 보다 깊게 들여다보면 미국의 건국 시대, 특히 연방헌법처럼 미국 정치의 근본 틀을 명문화시키는 과정에서 헌법제정자들이 확립한 정치적 회귀와 기억의 전통이야말로 "자유냐 평등이냐"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미국 정치의 근간을 마련했던 것이다.

첫째,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전통은 인간과 권력에 대한 현실적 태도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헛된 기대나 환상을 갖지 않고, 이기적 인간만을 현실의 인간으로 상정하고 마련한 현실적 정치제도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마련한 장이 곧 미국 정치다. 미국에서는 공허한 이념보다 현실 속의 제도가 훨씬 더 중요한 정치의 본질로 대접받아 왔다는 말이다. 권력은 그 시초의 열정이 아무리 순수해도 세월이 가면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냉철한 역사관, 그래서 권력의 타락과 남용을 방지할 방책은 인간의 이기심과 당파적 본능이 공공의 이익 전체를 훼손할 수 없게끔 만들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뿐이라는 현실적 태도가 변함없는 미국 정치의 근본이념인 것이다. 미국 건국의 지도자들은 유럽의 정치 사상가들과는 달리 그들의 이념이 공허한 구호나 수사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의 제도로 구체화되게끔 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쏟은 현실주의자들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정치가 근대 민주주의에 던져 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미국 민주주의의 화려한 외형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왕이든 백성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이기심은 결코 억제할 수 없다는 인식, 따라서 인간을 바꾸는 대신 정치제도로 권력과 인간 행동의 타락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야말로,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로서의 민주주의 사이에서 큰 괴리를 겪고 있는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둘째, 미국 정치의 또 다른 전통은 건국의 바탕이 된 원초의 정치적 담론을 가공, 보존, 기억하려는 정치적 의지다. 미국 정치를 기억과 회귀의 정치로 만든 요인은 공화주의나 캘빈주의적 역사관에서 비롯된 보수 성향뿐만이 아니다. 독립혁명과 연방헌법을 비롯한 초기의 '찬란한' 정치적 담론을 자유Freedom나 공화국Republic과 같은 구체적 수사에 담아 기억하고, 이 수사와 담론을 언제든지 현실 정치에서 개혁과 통합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이야말로 미국 정치의 강점이다. 또 독립혁명에 대한 숭고한 기억과 연방헌법에 구현된 공화정신에 대한 정치적 신화가 미국 정치의 바탕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연방국가로서의 미국에 필요한 단일한 국가 정체성은 형성되기 힘들었다. 이렇게 보면 미국 정치사에서 자유와 평등은 단순한 구호나 수사가 아니라 미국 연방의 정치적 통합을 가능케 했던 역사적 실체였다. 한국의 정치처럼, 현실에는 밝으면서도 현실주의적이지는 못한 정치, 또 얼핏 보면 이념으로 넘쳐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찬란한 정치적 기억과 정신도 없고 정치의 철학을 담론으로 구체화하지도 못하는 사상 부재의 정치가 공동체의 정치로 진화하기 위해서 미국 정치의 이념과 전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물론 미국 정치에 내재된 이중성과 모순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고도의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판치는 미국에서 자본의 지나친 집중과 횡포에 대한 강력한 제동은 주기적으로 표출되었다. 이것은 미국 정치의 바탕에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공존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취향과 성취를 철저히 숭상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관습이 건재하고, 모든 것을 상업화시키는 철저한 자본주의 질서하에서도 자원 봉사나 기부 문화가 편만해 있는 현상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치의 공화주의적 전통 속에 녹아 있는 공동체에 대한 윤리의식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 국경 안에서는

적극적인 사회적 차별 금지Affirmative Action를 주장하고 억압받는 자를 위한 평등을 외치면서도 국경 밖에서는 미국의 우월성과 불가침성, 또 미국의 구원자적 소명을 과시하는 이념적 오만이 일상화된 모순은 미국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인 '안과 밖의 이중성'이다. 또 자유를 위한 전쟁으로 독립한 나라를 자처하면서도, 힘을 바탕으로 삼는 전쟁의 자유를 마음대로 구가하는 모순, 즉 대내적으로는 강한 국가권력을 경계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강한 연방정부를 지지하는 이념적 모순도 미국의 특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성과 모순은 어쩌면 고대, 근대, 신이 함께 녹아 있는 미국의 정치가 앞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모순일지도 모른다. ■

권용립 dolty@hanafos.com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경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로는『미국 대외 정책사』,『미국의 정치문명』등이 있다.